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인 추진 '손 맞잡아'

도, 장수·순창군과 협약 전북자치도 대비 30% 부담 본 사업 확대토록 공동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대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들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준 김관영 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600만 원으로, 국비 40%, 대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순창군은 486억2,000만 원, 장수군은 369억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형 주거복지 모델' 전국서 인정

도, 주거복지대전 대통령 표창... 기존 정책 청년 등까지 확장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저소득층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주거복지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확장하고, 전국 최초로 저출생 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전북자치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북형 반할주택' 도입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대비 지원 △임대보증금·주거금융 지원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체계 구축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농촌재생 사업 등의 정책을 병행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달성해 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지원,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 적용,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최대 10년 거주 후 저렴한 분양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 주거 안정 패키지로,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을 지원해 왔다. 이후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신혼부부, 2024년에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구 지원과 농촌 유희시설 재생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연계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유공 포상 수여식은 오는 17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보조금 운용 혁신 분야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1억원)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전북도는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의무화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정산 검증 감사인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러 202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총 1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7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권고해,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당 국감 '전북 대표 일꾼' 재임증

尹정권 시절 신동진벼 생산 중단, 법안 통해 막아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추진 등 전북 현안 쟁거 '전북이 농생명·해양 산업 중심 되도록 역량 집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시절 전북의 대표적 신동진벼 생산을 중단시켰던 것을 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서 다 시한부 위상을 제고했다.

1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등원 첫해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북 대표 일꾼'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확대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전북의 미래가 걸린 지역 핵심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성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10월 국감에서 무엇보다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우선 전북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신동진벼' 종자 보급 중단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유도해 지역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와 진안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했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새만금 항만공사 설립 제안,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의 신속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익산), 전북 콩 산업의 가공·유통·수출 연계 모델 구

축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이 의원은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전북도민들과 농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과 해양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낙후 전북탈바꿈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대 대표와 삼각관대를 이뤄 새만금 지역의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각시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일 오후 4시 익산시 원광대학교 프리인관에서 원광대 민주 동문회가 주관한 가운데 임오경 국회의원, 초대가수 이정석, 안길철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의 슬로건과 함께한 민주, 함께할 이원택'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한 줄 소식 윤석열 '체포방해' 등 추가기소 사건, 내년 1월 16일 선고 예정



126년 역사의 군산항, 새만금항 신항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새만금항 신항